

굴비 매출 설 이어 또 반토막 한우 점포 줄고 빈축사 늘어

르포 / 김영란법 1년 맞는 영광 굴비·장흥 한우 시장

추석을 열흘 앞둔 25일 영광 범성포 굴비거리. 굴비 판매점 400여곳이 죽어 있어 있지만, 추석 대목까지 열흘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관련기사 3편>

1년 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직전 찾았던 '해변굴비' 황성식(47) 씨는 "우리가 현실이 됐다. 설 때보다 매출이 50%는 줄어버린 것 같다"고 한숨 지었다. 참조기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굴비 가격이 치솟은 데다 김영란법 여파로 손님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올해 설 굴비 판매액은 780억원으로 작년 설 판매액 1200억원보다 무려 35% 감소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지난 설보다 판매량이 또다시 절반가량 줄어든 것이다. 그야말로 '굴비의 비명'이다.

영광굴비협동조합 배현진 조합장은 "예전 범성포 굴비 매출은 웬만한 시·군 매출보다 많았는데 이제는 기대할 수 없다"며 "김영란법 이후 매출이 최소 40% 감소했다. 10만원 이상 구매하는 아예 똑 끊었다. 자원 고갈까지 겹쳐 앞으로 범성포 판매장 절반은 문을 닫을 처지다"고 말했다.

조기 어획량 줄어 '이중고' 소비자 한우선물세트 외면 화훼 매출도 30% 이상 급감

영광굴비의 위기는 전남도의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전남도가 올해 상반기 전남 수산물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굴비는 작년 대비 21.3%, 전복은 13.4%, 멸치는 12.1% 감소했다. 전남도는 이번 추석 기간에도 굴비·전복 등 전남 대표 특산물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분석해 부정청탁 금지법 대응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장흥 한우농가의 한숨 소리로 커져가고 있다.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김영중(53) 안양농협 조합장은 "한우선물세트는 최소 10만~15만원 선이다. 5만원이면 고기량이 한 주먹도 안된다. 그걸 선물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김영란법 이후 명절 선물에서 한우선물세트는 소비자의 선택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하소연했다. 김 조합장은 "설상가상으로 소값마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이제 사료값조차 건지기 힘들다"며 "주변에 빈 축사가 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우 직판장이 몰려있는 정남진장흥 토요시장은 한우고기값을 500g에서 400g으로 줄여 4만5000원(한우 400g 3만5000원, 키조개 1만원, 버섯 5000원)짜리 '소고기삼합세트'를 내놨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다.

소비 위축은 한우 도축현황에서 확인됐다. 토요시장내 24개 점포에서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소비한 한우는 총 2277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69마리보다 92마리가 줄었다.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던 토요시장내 점포 수도 올해는 정체 상태다.

화훼농가는 치명타를 맞았다. 'VIP 고객'이었던 공무원들이 구설에 오르는 것을 피하려고 아예 '축하 난' 선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환·조화도 마찬가지다. 가격이 최소 10만원인 탓이다. 소비 위축→가격 하락→출하량 감소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화훼 매출이 김영란법 시행전보다 30%가량 급감했다.

전남도와 지역 농수축산 농가들은 김영란법이 정한 상한선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정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광=김민석기자 mskim@



25일 최고 1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진 광주시 동구 용산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계자들이 크레인을 이용해 공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억 '웃돈'... 실수요자 '덤터기'

복마전 아파트 분양 시장

300가구 모집에 청약통장 3만개 접수... 대부분 부적격자 건설업체·분양회사·중개사 째짜미도... 서민 분양 '별따기'

2 불법·조작이 만든 프리미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모(45)씨는 최근 아파트 청약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 5년 남게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자녀 수가 3명, 무주택기간은 10년이 넘는 높은 점수의 1순위임에도 당첨되지 못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인지, 아니면 프리 단체장의 조식을 넘겨 받기 위한 '출서기'가 예상되면서 경선과 본선에 앞서 후보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아파트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 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또 수도권 외 지역인 광주의 청약 1순위는 6개월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면적에 따라 200만~1000만원을 납입한 자를 말한다. 가점제와 추첨제에 의해 당첨자가 정해지는데, 가점제에서 중요한 것은 분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이다. 오랜기간 집 없이 다수의 분양가족을 가진 지역주민이 우선 입주하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셈이다.

그러나 광주 아파트 시장은 '죽통', '점프통장', '깜깜이'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면서 무법천지가 됐다. 실수요자는 자취를 감추고,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세력이 광주 아파트 시장을 장악하면서 가격 상승과 전세 폭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죽통'은 가치가 없는 유주택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인증을 받아 직접 기입하게 돼 있는 분양가족수, 무주택기간을 허위로 가장 높은 기재, 가점제 물량을 싸쓸이하는 것을 말한다. '죽통'은 실수요자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역할도 한다. 최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300여가구 모집에 3만개에 가까운 청약통장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부적격자, 3개월 전에 광주로 전입한 외지인, 작전 세력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이 사전검증을 거쳐 부적격자를 통보하지만, 건설업체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다, 부적격자가 법이 규정한 예비입주자 20%를 넘어설 경우 건설업체가 선착순 분양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건설업체, 분양회사, 부동산업체 등이 답답해 '로열층'을 뒤로 빼돌려 프리미엄을 붙여 시장에 내놓으면서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가 가능한 것이다. 이를 '깜깜이'라고 한다. 분양공고나 예비입주자공고를 다른 지역 일간지나 관심도가 낮은 인터넷에 게재하기도 한다. 건설업체가 분양회사에 주는 수수료를 과거 1채당 300만원에서 60~70만원 선으로 줄이면서 분양회사는 프리미엄으로 수익 감소분을 챙기고 있으며, 건설업체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적격자가 양산돼 예비입주자가 나올 경우 공개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법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2면에 계속>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지방선거 '무주공산' 9곳 물밑경쟁 뜨겁다

후보군 난립 과열·혼전도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할지, 아니면 과열·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구청장 선거에는 후보군이 많게는 8~9명까지 거론되는 등 난립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전남지역은 22개 시·군 가운데 박병중 고흥군수와 서기동 구례군수가 3선 연임 제한으로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 여기에 박철환 해남군수가 공무원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현재로서는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서 5곳이 현직 단체장 없이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현직 단체장의 프리미엄이 상당함 따라 '무주공산' 지역의 선거의 경우 후보군 난립

속에서 각 정당의 경선전부터 혼전 양상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3선 연임 제한 선거구와 기초단체장의 광역단체장 도전 지역이 많음에 따라 후보들 간 현 단체장의 조식을 넘겨 받기 위한 '출서기'가 예상되면서 경선과 본선에 앞서 후보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침 없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음탄™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스틴오일 및 전곡 백화진, 아모레 키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레그스틴오일: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